

##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오 용 준 · 임 형 빈 · 정 지 은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이 연구는 충청남도 국토교통국이 추진한 2017~2018년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해 주민의식\* 조사,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2019년 공모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CONTENTS

1.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검토
2. 도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등에 대한 주민 요구 분석
3. 공모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4. 행복한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지역 경제 파급효과

### 요약

- 충청남도는 2017년부터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공원, 쌈지주차장, 도로교통표지 개선사업 (2018년부터 추진)을 추진 중에 있음
- 스마트 공원에 대하여는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7%가 만족하고 있었고, 향후에는 지원사업 내용을 다양화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쌈지 주차장은 전체 응답자의 92.6%가 만족하였고 생활환경 개선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앞으로 여성이 안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2018년 새로 도입된 도로교통표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0%가 만족하였고, 기타 의견으로 사업 확대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2019년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은 축소도시, 스마트도시, 포용도시, 회복탄력성 높은 도시 등 도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여 사업추진방향과 평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은 2018년 13개소 59억원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75.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5.7억원, 고용유발효과는 75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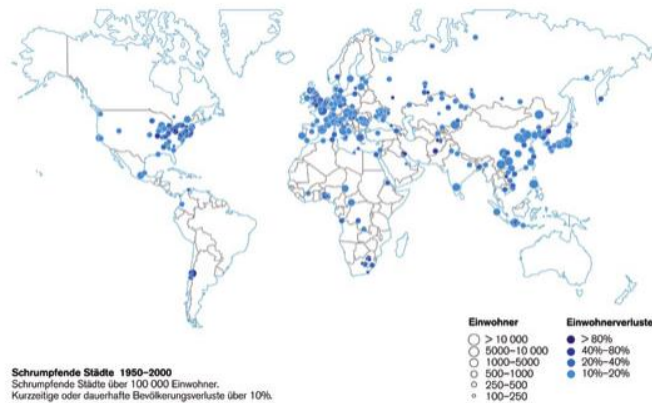
##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검토

### 1.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정책

- 최근 일본, 미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도시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결정하고, 불필요한 서비스는 조정하는 적정규모화(Smart Decline, 스마트 축소)가 진행 중임
  - 미국(피츠버그, 영스타운 등)은 성장지향에서 축소 적응으로 전환하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축소하고 맞춤형 유희부동산을 관리하는 축소도시정책을 추진 중임
  - 독일은 라이프히치, 드레스덴 등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녹지 거점 확보에 집중하는 동독 도시재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일본은 중추도시권정책, 정주자립권 구상<sup>1)</sup>을 통해 여러 도시를 연계하며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Network) 도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미국의 축소도시에서는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 저소득층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직주균형(Job-housing Balance) 프로그램과 충전형 개발(Infill Development)을 통합 압축도시정책도 추진 중임
- 인구감소시대에는 대도시권화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이로 인해 지방중소도시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축소도시정책은 일본, 미국,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압축(Compact)과 연계(Network), 그리고 적정규모화(Smart Decline)등의 복합적 처방을

1) 구급의료체계 확보,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도서대출 편의성 향상 등

통해 구현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Shrinking cities 195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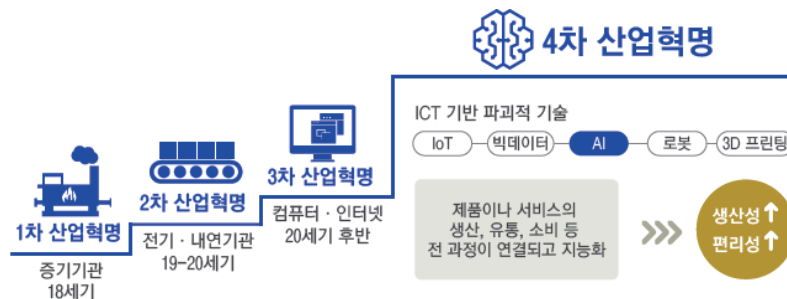
자료 : Simona Schett, 2012. “An Analysis of Shrinking Cities”.

## 2. 제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도시정책

- 우리나라는 초연결·초기능 사회로 스마트한 진화를 위해 하드웨어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의 소용돌이 속으로 접어들고 있음
  - 2011년 독일에서는 인터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제조업 혁신이라는 취지 하에 제안한 후 2013년 정부 정책문건에 반영하였고, 세계경제포럼은 전 산업으로 확장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음
  - 일본은 다보스포럼에서 제시된 제4차산업혁명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한 첫 국가라고 할 수 있음
  -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OECD에서는 Digital Transformation, Going Digital, Next Production Revolution 등의 용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음
- 전세계 프로젝트의 약 70%가 에너지, 교통, 안전 등 3대 도시 요소에 집중되어 있고(IDC, 2013), 전 세계 스마트도시 시장은 메가 시티(Mega City) 증가로 급속하게 성장할 전망이다



- 우리나라 역시 4차산업혁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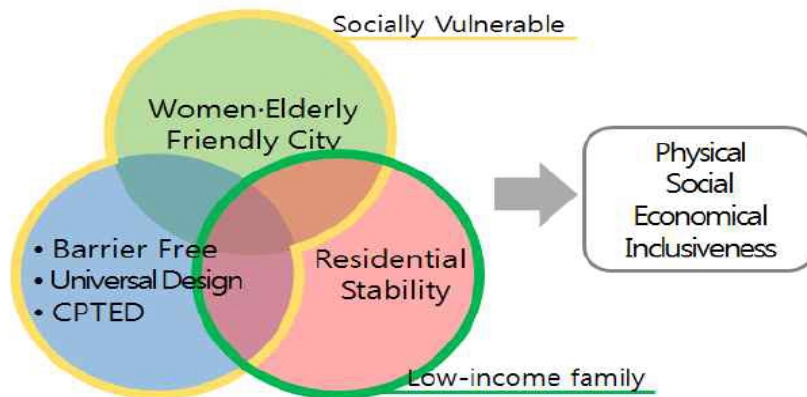
[그림 2] 산업혁명의 전개과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 「산업부가 바라본 4차산업혁명 코리아루트」

### 3. 포용의 시대 포용도시정책

- 뉴노멀시대를 맞이하며 국제기구는 포용적 도시발전을 제안하고 있다. UN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Post-2015 개발의제로 채택하였음
  - 사람이 가난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교육과 보건위생,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와 에너지 접근이 보장되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OECD & World Bank는 2017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제안하면서 빈곤 감소,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세계은행은 도시정책이 사회적경제작공간적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포용성을 중요하게 여겼음
- UN HABITAT에서도 2016년 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의제(The New Urban Agenda)를 채택하면서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조성할 때 도시화는 인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 특히 도시정책 추진에 있어 자원 배분에 있어 공간정의,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참여,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임

- 도시계획 측면에서 포용도시는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여성·고령친화도시, 주거복지 등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오용준·윤갑식(2012):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이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 개선을 통한 도시공간의 안정성과 보편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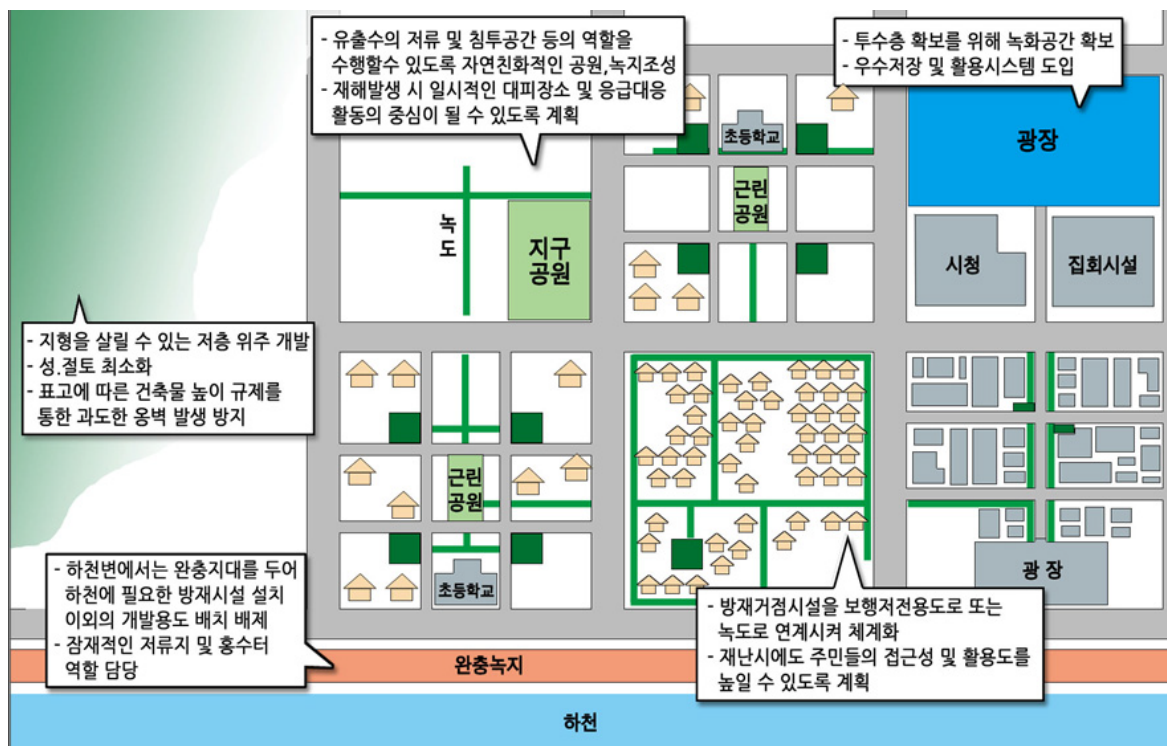
[그림 3] 포용도시 개념도

자료 : 손지현 외, 2016, “포용도시 계획요소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51권 제6호.

#### 4. 지속가능한 시대 회복탄력성 높은 도시정책

-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물리학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능력을 말함. 이는 생태학과 자연과학, 최근에는 도시정책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2001년 뉴욕, 2005년 런던 테러 등으로 도시의 자생적 안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었고,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이후 지카 바이러스 등에 대한 도시 안전시스템의 문제가 확산되었음
- 도시 지속가능성의 위협 요인으로는 기후변화, 자연적 사건, 기술적 사건, 인간유발 사건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공통점으로 가짐

- 고령화, 저성장, 저소비 시대 등 뉴노멀(New Normal)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회복탄력성(Urban Resilience)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됨
  - 최근 들어 기존 도시의 기능과 자생력에 대한 재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협요소로부터 도시 스스로가 빠르게 회복·변경되어 기존의 체계를 유지해 낼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회복탄력성 높은 도시(Resilient City) 개념이 등장하였음
  -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지역이 폭우, 폭염 등과 같은 재난에 취약해지면서 미세먼지 그린인프라, 도시숲 등의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리질리언스는 통계적 상태가 아니라 과정(process)을 고려하며 시스템의 리질리언스가 높을수록 위기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됨을 의미함



[그림 4] 설계(개발) 단계에서의 도시안전기준

자료 : 국립안전연구원, 2012, 방재력을 고려한 도시안전기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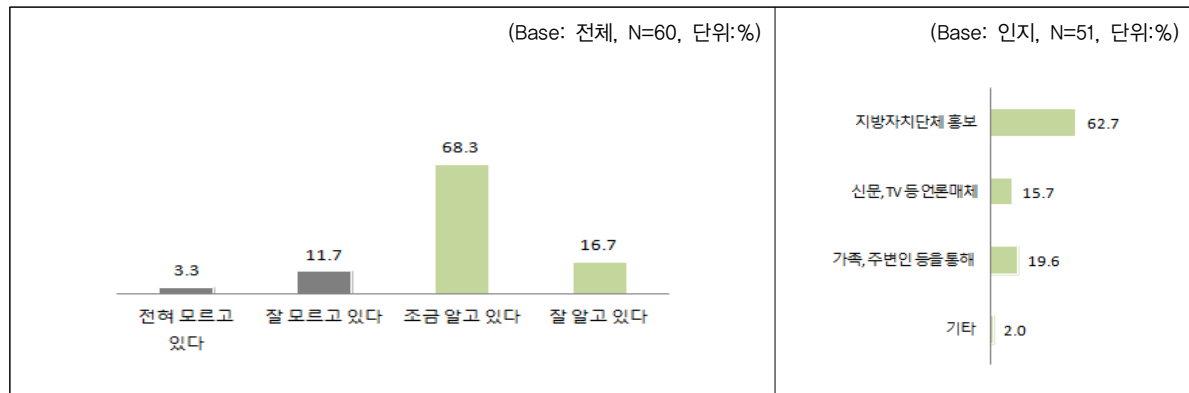
## 02

# 도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등에 대한 주민 요구 분석

- 충청남도는 2017년부터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공원, 쌈지주차장, 도로교통표지 개선사업(2018년부터 추진)을 추진 중에 있음
  - 본 장에서는 2018년 추진한 스마트 공원, 쌈지주차장, 도로교통표지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의 식조사결과를 제시하였음

## 1. 스마트 공원

- 응답자 특성
  - 스마트 공원 사업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의 총 응답자(60부) 중 남성 53.3%, 여성 46.7%임. 연령별로는 20대 16.7%, 30대 38.8%, 40대 26.7%, 50대 11.7%, 60세 이상 6.7%임.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 11.7%, 5~10년 26.7%, 11~30년 31.7%, 30년 이상 30.0%이며, 직업은 사무직 68.3%, 자영업 6.7%, 수산업과 임업 각각 1.7% 등으로 나타남
- 사업 인지도
  - 스마트 공원 사업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 16.7%, 조금 알고 있다 68.3%로, 알고 있다 85.0%임. 반면 잘 모르고 있다는 11.3%, 전혀 모르고 있다는 3.3%임
  - 스마트 공원 사업의 인지 경로(N=51)는 지방자치단체 홍보가 62.7%로 과반 이상이고, 다음으로 가족, 주변인 등을 통해 19.6%, 신문, TV 등 언론매체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 정주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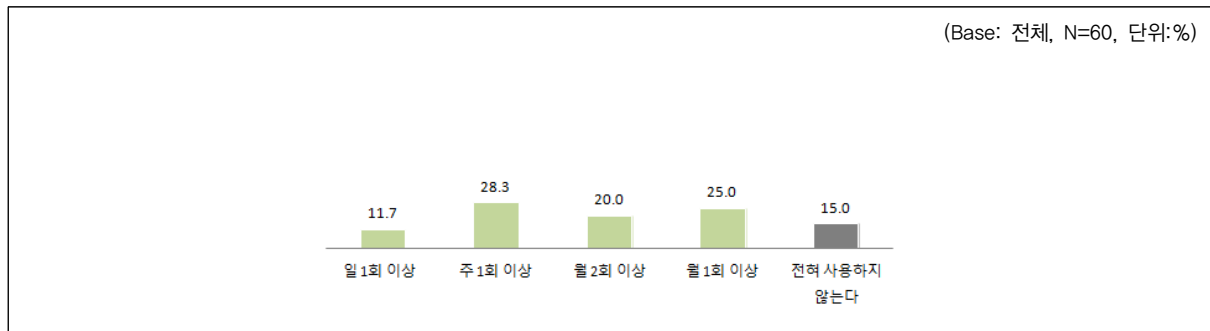
- 현 거주지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43.3%)과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공원시설 이용 불편(41.7%)으로 나타남
- 한편, 현 거주지 주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여가녹지 조성이 31.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도심내 주차장 조성(26.7%), 공원 리모델링 및 신규 조성(20.0%)이 높게 나타남

[표 1] 주거 불편 사항 및 개선 필요 사업

구분		빈도	비율(%)
불편 사항	인구감소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8	13.3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26	43.3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공원시설 이용 불편	25	41.7
	도심 내 노후 폐가 방치	1	1.7
개선 사업	도심내 주차장 조성	16	26.7
	공원 리모델링 및 신규 조성	12	20.0
	원도심 주변 폐가 정비	4	6.7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도로 안전 정비	3	5.0
	자전거 도로 조성	3	5.0
	여가녹지 조성	19	31.7
	청년 귀농인 공공임대주택 조성	3	5.0

## ● 이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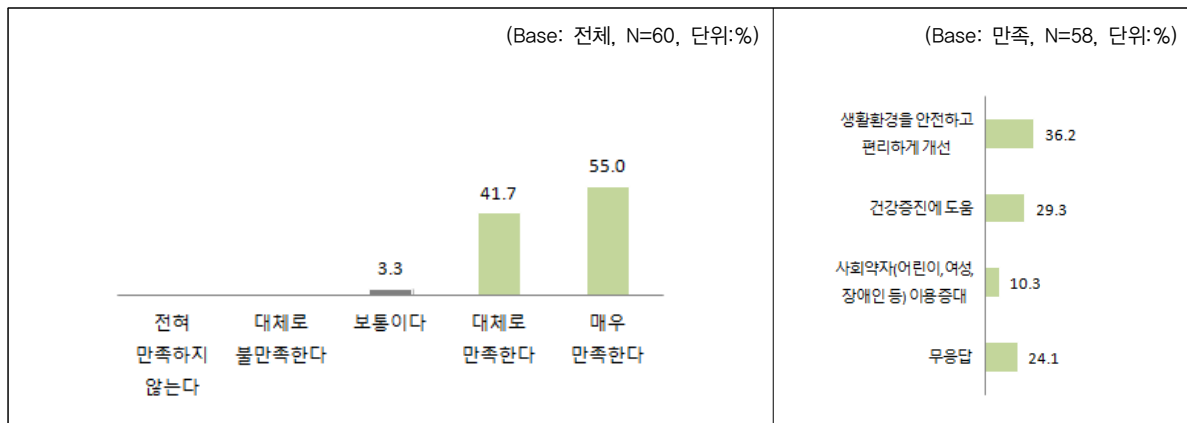
- 스마트 공원 이용 정도는 주 1회 이상이 28.3%로 가장 높고, 월 1회 이상 25.0%, 월 2회 이상 20.0%, 일 1회 이상 11.7%로 나타남. 한편,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0%로 일 1회 이상 이용자보다 많음



[그림 6] 이용 정도

## ● 사업 만족도

- 스마트 공원 사업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55.0%, 대체로 만족한다 41.7%로, 만족 96.7% 임. 한편 보통은 3.3%이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없음
- 스마트 공원 사업의 만족(N=58) 이유는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 36.2%, 건강증진에 도움 29.3%, 사회약자(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이용 증대 10.3% 등의 순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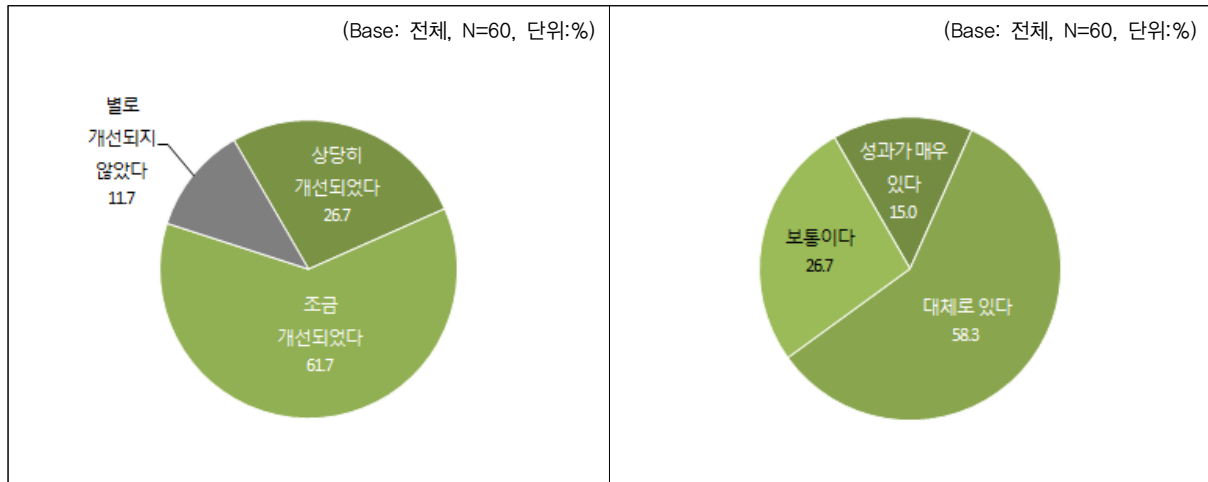


[그림 7] 만족도 및 만족 이유

## ● 사업 성과

- 스마트 공원 조성으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 정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26.7%, 조금 개선되었다 61.7%,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11.7%로 나타남. 한편 스마트 공원 조성의 성과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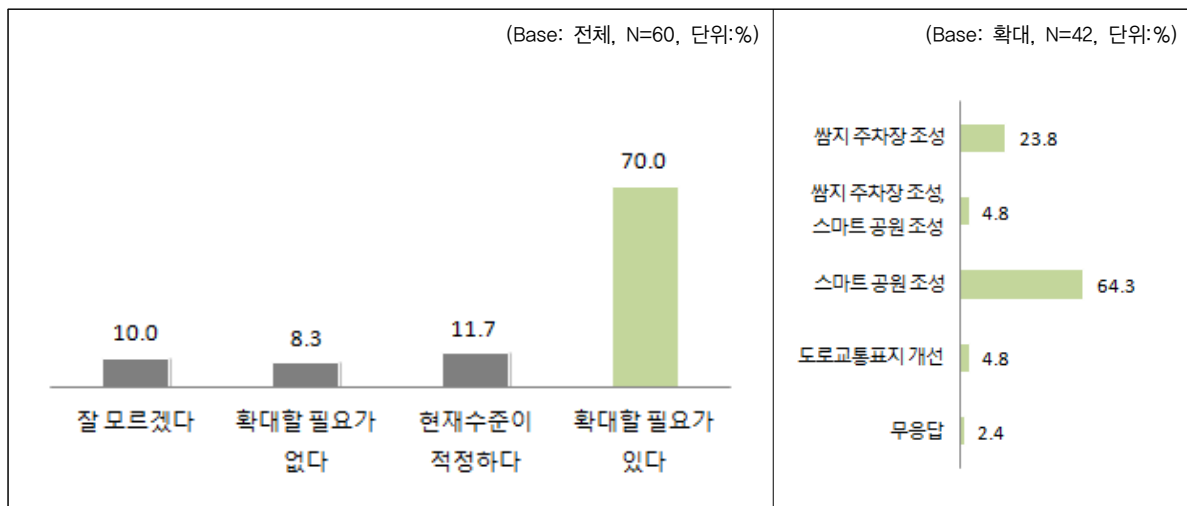
성과가 매우 있다 15.0%, 대체로 있다 58.3%, 보통 26.7%로 나타남



[그림 8] 생활환경 개선 정도 및 사업 성과

#### ● 사업 확대

- 스마트 공원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70.0%로 높은 가운데,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 11.7%, 확대할 필요가 없다 8.0% 등으로 나타남
- 한편 확대가 필요한 사업(N=42)으로는 스마트 공원 조성이 64.3%로 과반 이상이고, 쌈지 주차장 조성 23.8%, 도로교통표지 개선 4.8% 등의 순을 보임



[그림 9] 사업 확대 필요성 및 사업 분야



## ● 의견 수렴

- 스마트 공원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지원사업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가 4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차장, 공원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편중되어 있다(36.7%), 주민참여가 미비하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15.0%),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사업 선정 시 주민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반영되고 있다 8.3%, 잘 반영되고 있다 33.8%, 보통이다 56.7%,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1.7%로 나타남

[표 2] 사업의 문제점 및 주민 의견 반영 정도

		빈도	비율(%)
문제점	주차장, 공원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편중되어 있다	22	36.7
	주민참여가 미비하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	9	15.0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8.3
	지원사업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	24	40.0
의견 수렴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	5	8.3
	잘 반영되고 있다	20	33.3
	보통이다	34	56.7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1	1.7

[표 3] 의견 및 건의 사항

지역	의견 및 건의 사항
보령	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 등 개최
예산	만족합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을 더 확충했으면 합니다
	지원사업이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 및 여가시설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태안	사업투자를 집중하여 시행하였으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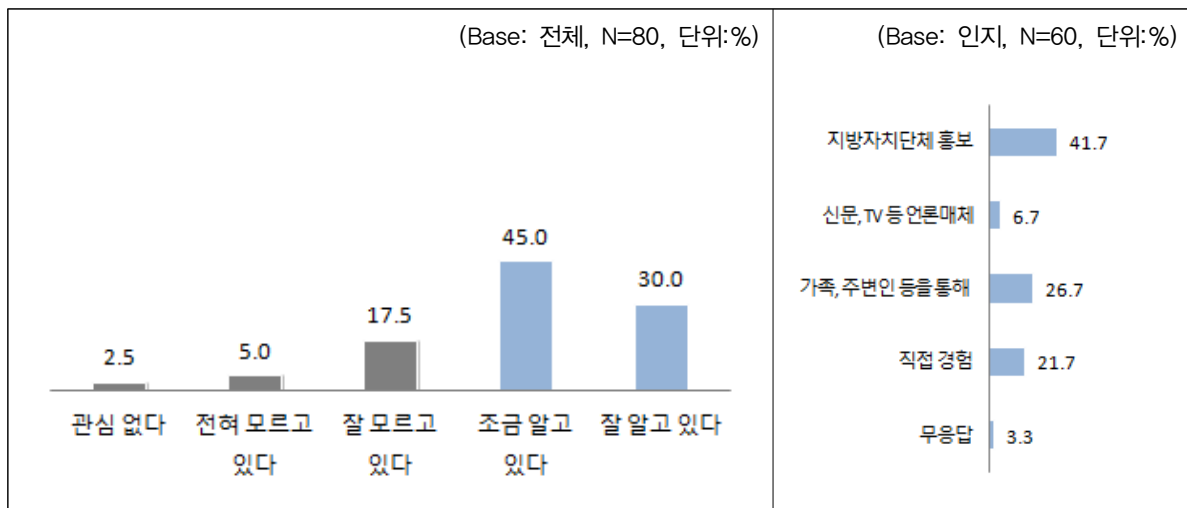
## 2. 싹지 주차장

### ● 응답자 특성

- 싹지 주차장 사업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의 총 응답자(80부) 중 남성 66.3%, 여성 33.8%임. 연령별로는 20대 12.5%, 30대 38.8%, 40대 22.5%, 50대 18.8%, 60세 이상 12.5%임.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 22.5%, 5~10년 20.0%, 11~30년 31.3%, 30년 이상 26.3%이며, 직업은 사무직 50.0%, 자영업 21.3%, 농업 10.0%, 수산업 1.3% 등으로 나타남

### ● 사업 인지도

- 싹지 주차장 사업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 30.0%, 조금 알고 있다 45.0%로, 알고 있다 75.0%임. 반면 잘 모르고 있다는 17.5%, 전혀 모르고 있다는 5.0%, 관심 없다 2.5%임
- 싹지 주차장 사업의 인지 경로(N=60)는 지방자치단체 홍보가 41.7%이고, 다음으로 가족, 주변인 등을 통해 26.7%, 직접 경험 21.7%, 신문, TV 등 언론매체 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 정주 여건

- 현 거주지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이 6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20.0%,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공원시설 이용 불편 11.3%, 도심 내 노후 폐가 방치 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현 거주지 주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도심내 주차장 조성이 50.0%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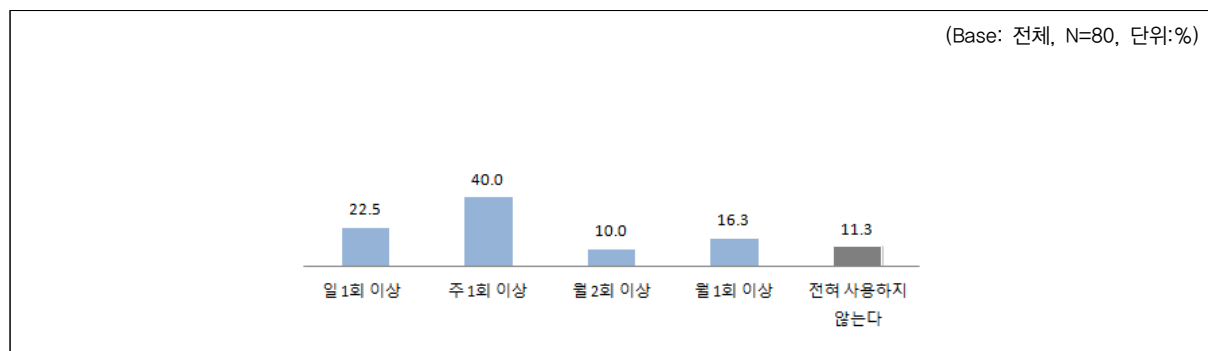
높았고, 다음으로 원도심 주변 폐가 정비 11.3%,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도로 안전 정비 8.8%, 공원 리모델링 및 신규 조성 5.0% 등의 응답을 보임

[표 4] 주거 불편 사항 및 개선 필요 사업

		빈도	비율(%)
불편 사항	인구감소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16	20.0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52	65.0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공원시설 이용 불편	9	11.3
	도심 내 노후 폐가 방치	2	2.5
	무응답	1	1.3
개선 사업	도심내 주차장 조성	50	62.5
	공원 리모델링 및 신규 조성	4	5.0
	원도심 주변 폐가 정비	9	11.3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도로 안전 정비	7	8.8
	자전거 도로 조성	2	2.5
	여가녹지 조성	3	3.8
	청년 귀농인 공공임대주택 조성	3	3.8
	노후 상하수도 정비	1	1.3
	기타	1	1.3

## ● 이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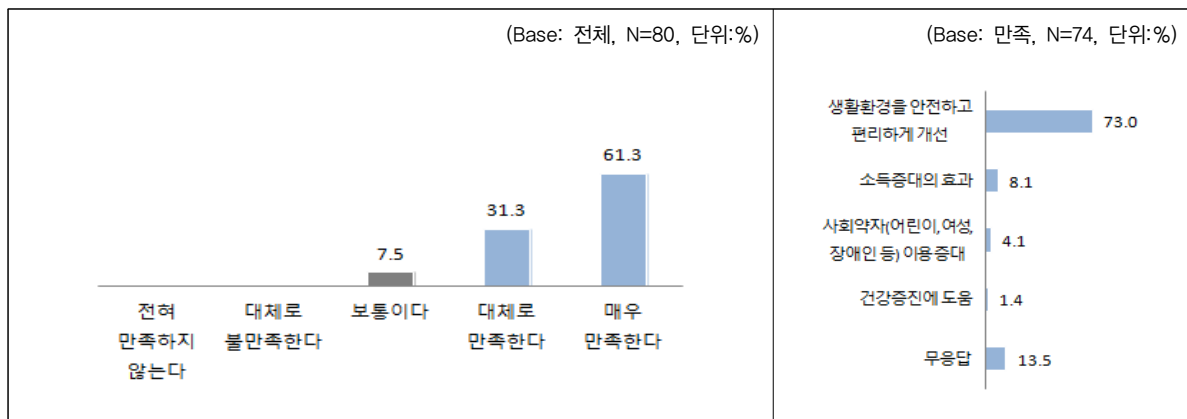
- 씬지 주차장 이용 정도는 주 1회 이상이 40.0%로 가장 높고, 일 1회 이상 22.5%, 월 1회 이상 16.3%, 월 2회 이상 10.0%로 나타남. 한편,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임



[그림 11] 이용 정도

## ● 사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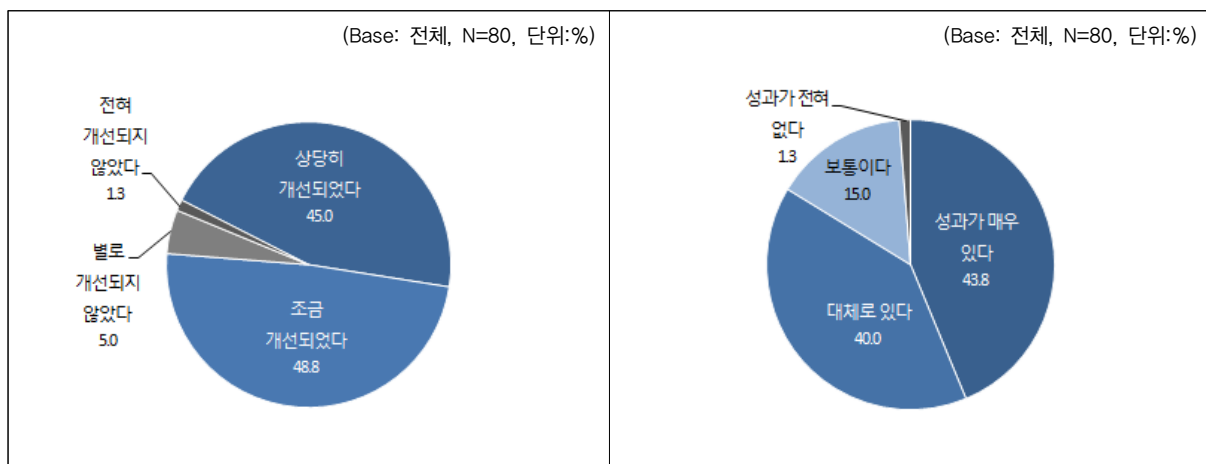
- 쌈지 주차장 사업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61.3%, 대체로 만족한다 31.3%로, 만족 92.6% 임. 한편 보통은 7.5%이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없음
- 쌈지 주차장 사업의 만족(N=74) 이유는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 73.0%, 소득증대의 효과 8.1%, 사회약자(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이용 증대 4.1%, 건강증진에 도움 1.4% 등의 순을 보임



[그림 12] 만족도 및 만족 이유

## ● 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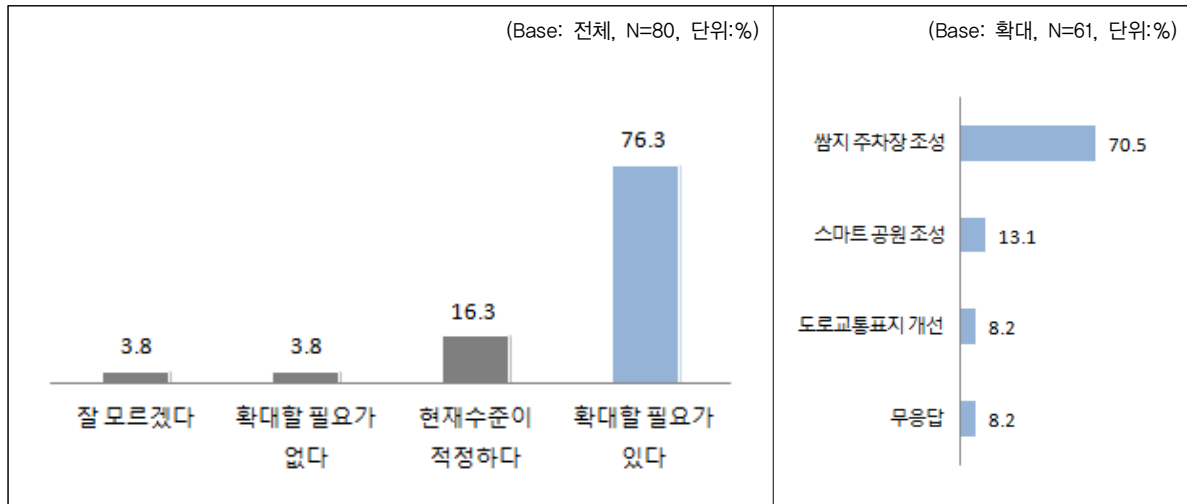
- 쌈지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 정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45.0%, 조금 개선되었다 48.8%,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5.0%,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1.3%로 나타남. 한편 쌈지 주차장 조성의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가 매우 있다 43.8%, 대체로 있다 40.0%, 보통 15.0%, 성과가 전혀 없다 1.3%로 나타남



[그림 13] 생활환경 개선 정도 및 사업 성과

## ● 사업 확대

- 씬지 주차장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76.3%로 높은 가운데,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16.3%, 확대할 필요가 없다 3.8% 등으로 나타남
- 한편 확대가 필요한 사업(N=61)으로는 씬지 주차장 조성이 70.5%로 과반 이상이고, 스마트 공원 조성 13.1%, 도로교통표지 개선 8.2% 등의 순을 보임



[그림 14] 사업 확대 필요성 및 사업 분야

## ● 의견 수렴

- 씬지 주차장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지원사업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4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차장, 공원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편중되어 있다(31.3%), 주민참여가 미비하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15.0%), 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사업 선정 시 주민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반영되고 있' 32.5%, 잘 반영되고 있다 43.8%, 보통이다 21.3%,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2.5%로 나타남

[표 5] 사업의 문제점 및 주민 의견 반영 정도

		빈도	비율(%)
문제점	주차장, 공원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편중되어 있다	25	31.3
	주민참여가 미비하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	12	15.0
	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5.0
	지원사업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	32	40.0
	기타	7	8.8
의견 수렴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	26	32.5
	잘 반영되고 있다	35	43.8
	보통이다	17	21.3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2	2.5

[표 6] 의견 및 건의 사항

지역	의견 및 건의 사항
금산	다른사업과 연계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예) 공원조성시 산책길과 연동 등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어 주세요
서천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 중 원도심 쌈지주차장을 통해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도로 정비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 편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청양	쌈지주차장 좋지만 장기주차로 이용하기 어려워요. 크게 조성하면 안될까요?
	물건 사러온 손님이 주차장이 있어 편하다고합니다. 계속 조성해 주세요
	주차장 부족으로 골목길 복잡하니 매년 필요한 곳에 주차장 조성해 주세요: 예산이 문제지만요
태안	도시재생 사업 필요
	여성이 살기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에 쌈지주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도로교통표지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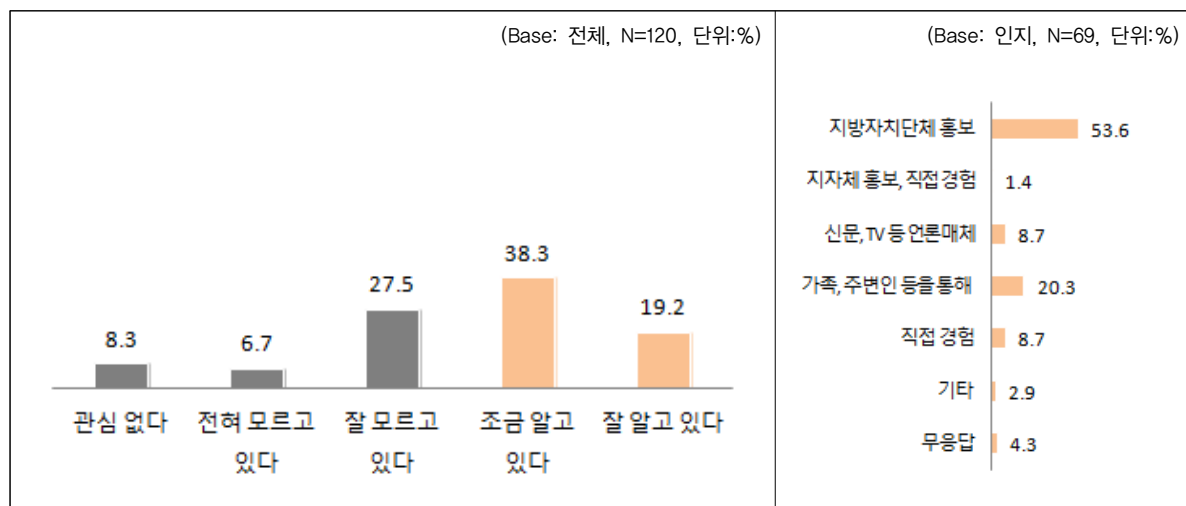
### 3. 도로교통표지 개선

#### ● 응답자 특성

- 도로교통표지 개선 사업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의 총 응답자(120부) 중 남성 65.0%, 여성 35.0%임. 연령별로는 20대 15.8%, 30대 27.5%, 40대 35.0%, 50대 15.8%, 60세 이상 5.8%임.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 11.7%, 5~10년 20.8%, 11~30년 35.8%, 30년 이상 30.8%이며, 직업은 사무직 49.2%, 자영업 11.7%, 농업 6.7%, 임업 2.5%, 수산업 1.7% 등으로 나타남

#### ● 사업 인지도

- 도로교통표지 개선 사업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 19.2%, 조금 알고 있다 38.3%로, 알고 있다 57.5% 임. 반면 잘 모르고 있다 27.5%, 전혀 모르고 있다 6.7%, 관심 없다 8.3%임
- 도로교통표지 개선 사업의 인지 경로(N=69)는 지방자치단체 홍보가 53.6%이고, 다음으로 가족, 주변인 등을 통해 20.3%, 직접 경험과 신문, TV 등 언론매체(각각 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5]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 정주 여건

- 현 거주지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이 5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20.0%,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공원시설 이용 불편



14.2%, 도심 내 노후 폐가 방치 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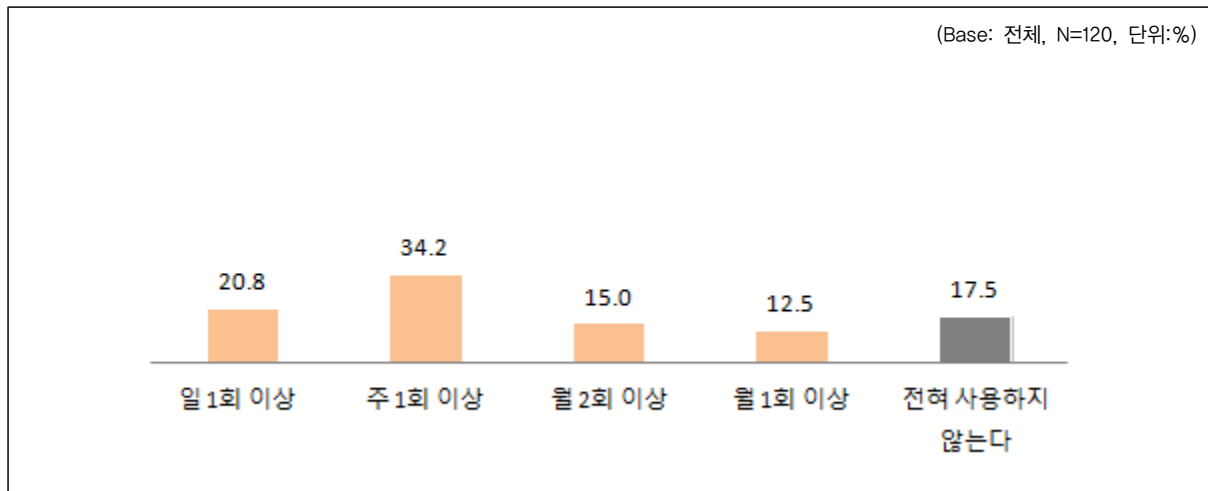
- 한편, 현 거주지 주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도심내 주차장 조성이 4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도로 안전 정비 16.7%, 원도심 주변 폐가 정비와 여가녹지 조성(각각 11.7%), 청년 귀농인 공공임대주택 조성 5.8% 등의 응답을 보임

[표 7] 주거 불편 사항 및 개선 필요 사업

		빈도	비율(%)
불편 사항	인구감소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24	20.0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66	55.0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공원시설 이용 불편	17	14.2
	도심 내 노후 폐가 방치	8	6.7
	기타	4	3.3
	무응답	1	0.8
개선 사업	도심내 주차장 조성	54	45.0
	공원 리모델링 및 신규 조성	4	3.3
	원도심 주변 폐가 정비	14	11.7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도로 안전 정비	20	16.7
	자전거 도로 조성	4	3.3
	여가녹지 조성	14	11.7
	청년 귀농인 공공임대주택 조성	7	5.8
	노후 상하수도 정비	2	1.7
	기타	1	0.8

## ● 이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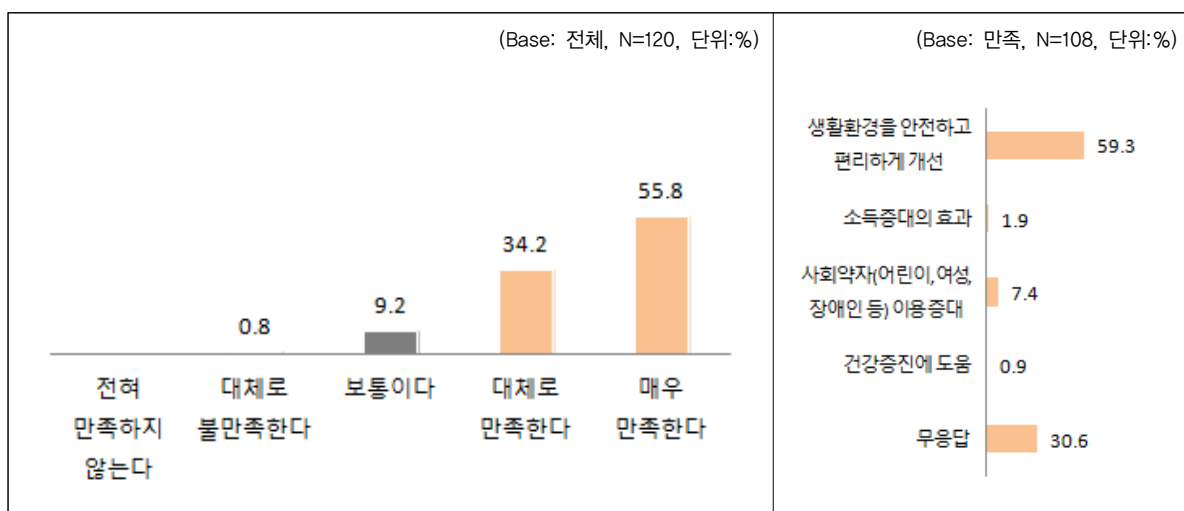
- 도로교통표지 개선 사업의 이용 정도는 주 1회 이상이 34.2%로 가장 높고, 일 1회 이상 20.8%, 월 2회 이상 15.0%, 월 1회 이상 12.5%로 나타남. 한편,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5%임



[그림 16] 이용 정도

### ● 사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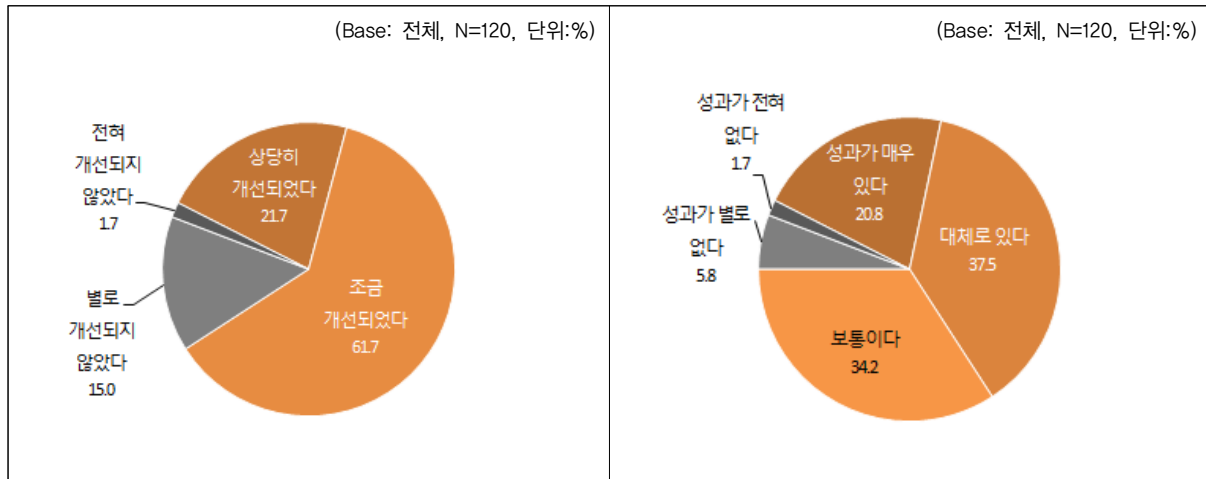
- 도로교통표지 개선 사업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55.8%, 대체로 만족한다 34.2%로, 만족 90.0% 임. 한편 보통은 9.2%이고,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0.8%임
- 도로교통표지 개선 사업의 만족(N=108)이유는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 59.3%, 사회약자(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이용 증대 7.4%, 소득증대의 효과 1.9%, 건강증진에 도움 0.9% 등의 순을 보임



[그림 17] 만족도 및 만족 이유

## ● 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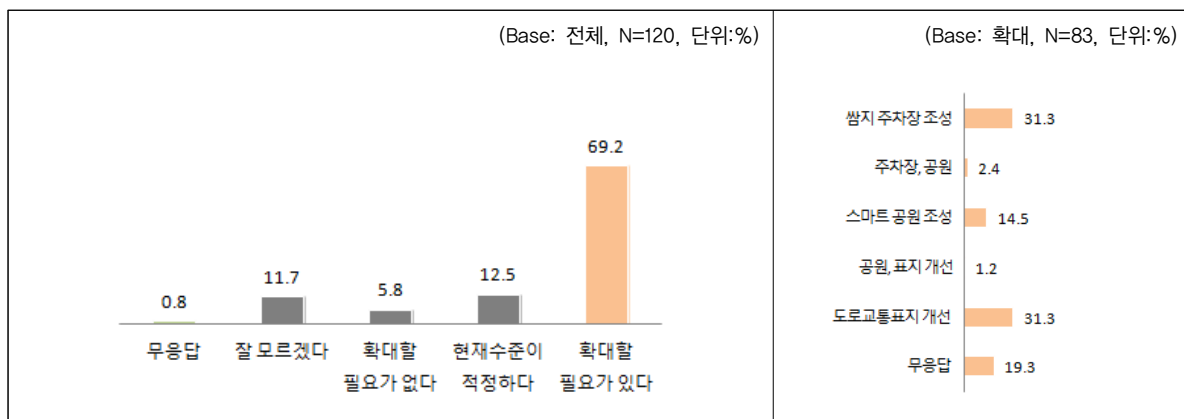
- 도로교통표지 개선으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 정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21.7%, 조금 개선되었다 61.7%,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15.0%,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1.7%로 나타남
- 한편 도로교통표지 개선의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가 매우 있다 20.8%, 대체로 있다 37.5%, 보통 34.2%, 성과가 별로 없다 5.8%, 성과가 전혀 없다 1.7%로 나타남



[그림 18] 생활환경 개선 정도 및 사업 성과

## ● 사업 확대

- 도로교통표지 개선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9.2%로 높은 가운데,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 12.5%, 확대할 필요가 없다 5.8% 등으로 나타남. 한편 확대가 필요한 사업(N=83)으로는 쌈지 주차장 조성 31.3%로 높고, 스마트 공원 조성 14.5% 등 임



[그림 19] 사업 확대 필요성 및 사업 분야

## ● 의견 수렴

- 도로교통표지 개선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공원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편중되어 있다(29.2%), 지원사업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26.7%), 주민참여가 미비하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25.8%)가 비슷한 수준으로 상위를 보였고, 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3.3%로 나타남. 한편 사업 선정 시 주민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반영되고 있다 10.0%, 잘 반영되고 있다 29.2%, 보통이다 50.0%,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10.8%로 나타남

[표 8] 사업의 문제점 및 주민 의견 반영 정도

		빈도	비율(%)
문제점	주차장, 공원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편중되어 있다	35	29.2
	주민참여가 미비하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	31	25.8
	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	13.3
	지원사업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	32	26.7
	기타 및 무응답	6	5.0
의견 수렴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	12	10.0
	잘 반영되고 있다	35	29.2
	보통이다	60	50.0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13	10.8

[표 9] 의견 및 건의 사항

지역	의견 및 건의 사항
공주	교통표지판의 효과가 상당히 좋은것 같습니다. 더욱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상기 3가지 사업 모두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지속추진 및 확대를 건의함
서산	더욱 적극적인 개선사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서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여	사업이후 시설물 관리가 미흡
	인도, 도로정비, 도로 옆 주차금지, 시설 이정표 안내
	공모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홍성	도시재생 사업 필요
	여성이 살기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에 썸지주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03

## 공모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 1. 스마트 공원

- 천안, 서산, 태안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원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공원부지가 20년 동안 활용되지 않을 경우 2020년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를 앞두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함
- 2019년부터는 유휴토지를 활용한 포켓공원(Pocket Park)이나 보행자 중심의 공공공간을 제공하는 주차장공원(Parklets), 도시농업공원, 도시생태공원, 미세먼지 방지 그린공원 등 공원의 다기능화를 유도하는데 공모방향 및 평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11년 주행속도 40km 이하 도로변 주차장 중 일부를 파크렛(Parklet)이란 주차장공원으로 조성하여 상업공간을 활성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도시농업공원은 도심 황폐한 공간을 공동텃밭으로 만들어 생산과정과 결과를 주민이 공유하는 도시텃밭과 도시공원 개념을 결합한 공원이라 할 수 있음. 북미에서는 시민들이 도시의 유휴토지에서 텃밭을 일구고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푸드뱅크(Food Bank)를 통해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고 있음
  - 도시공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책으로 도시숲에 대한 효과가 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의 미세먼지 그린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미세먼지 방지 도시공원 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20]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주차장공원(Parklets)



[그림 21]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팝업가든

자료 :

<http://www.visitphilly.com/events/philadelphia/pennsylvania-horticultural-society-pop-up-garden/#sm.000012txj1yjaer2xam21r77vma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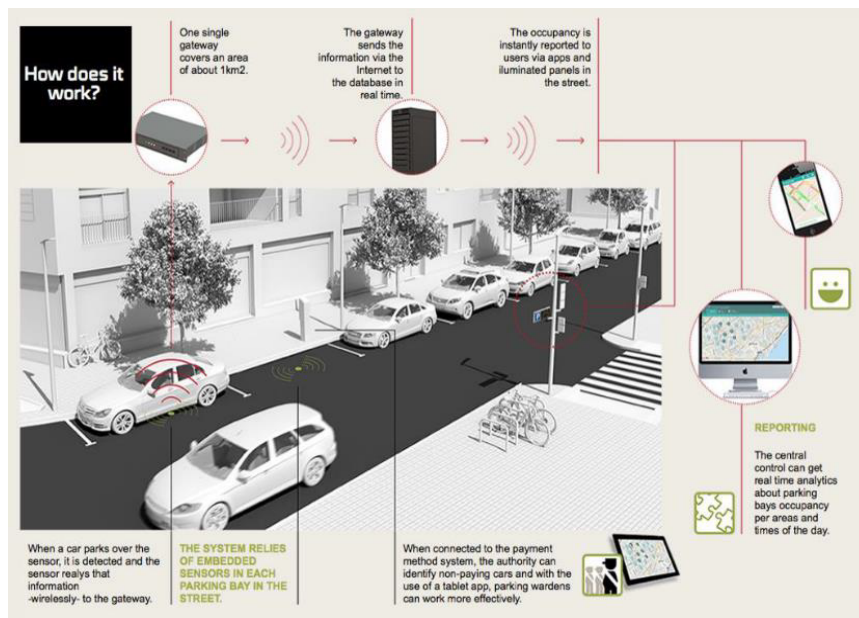


[그림 22] (도시)숲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모식도

자료 : 산림과학원. 2017. 보도자료 : 도시숲은 미세먼지 잡아먹는 하마.

## 2. 쌈지 주차장

- 분석결과 쌈지 주차장은 보령, 부여, 서천, 청양, 예산 원도심 등에 조성하였는데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폐가와 유희토지를 활용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쌈지주차장 사업은 앞으로 스마트 주차장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의 스마트도시 정책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 주차장은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하여 주차 가능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주차난을 극복하는 개념임
  - 국토교통부는 2017년 “유희 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공간 확대” 보도자료를 통해 주차수요·공급 간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유희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주차시설 공유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23] 미국 뉴욕시 맨하탄의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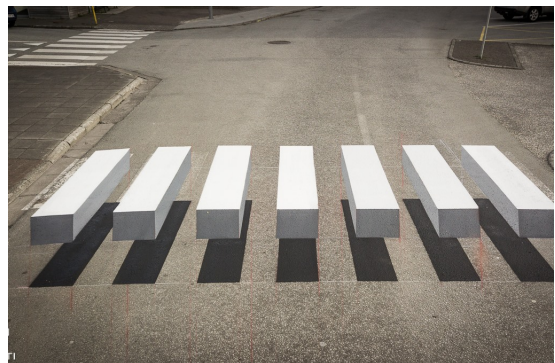
### 3. 도로·교통표지 정비

-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성격을 전환하기 위해 도로·교통표지 정비사업도 추진 중인데, 어르신 운전자의 사고발생 위험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2019년부터는 보행자에게 안전한 완전도로 시범사업이나 보행자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 가로시설 등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완전도로(Complete Streets)는 모든 연령이 다양한 교통수단(보행, 자동차, 자전거 등)을 조화롭게 통행가능하도록 하는 도로를 의미함
- 미국 테네시주(Tennessee)에서는 보행현시(顯示)를 줄여주기 위해서 보행자 안전지대를 만들어주고, 자동차 주행속도를 줄이기 위해 차선향을 줄이며 고원식 횡단보도<sup>2)</sup>를 설치하고 있음
- 스마트 가로시설은 횡단보도 지면상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단순한 문구의 삽입의 예부터 보행자 및 차량의 동적 움직임에 반응하여 조명을 비춰주는 지능형 가로등의 설치, 레이저빔이나 LED조명을 활용한 보행 식별성 강화, 그리고 텔 레매틱스(Telematics) 기술과 위치기반기술(LBS)을 활용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자동차의 개발 등을 의미함



[그림 24] 완전도로

자료 : 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 2013, 「Urban Street Design Code」



[그림 25] 3d 횡단보도

자료 : <https://www.facebook.com/gustiphotography/>

2) 횡단보도가 좌우 도보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진 형태

## 04

# 행복한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 1. 파급효과 분석 개요

- 충청남도의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된 원도심 스마트공원, 쌈지주차장, 교통표지 개선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본적으로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ulti-region input-output model, MRIO)을 적용하여 분석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각 년도별, 사업별 투자된 금액으로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분석의 결과는 충남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되며, 제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는 지역별 생산액과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 창출효과로 구분됨
- 충남의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은 2017년 12개소 57.3억, 2018년 13개소 59.12억이 투자됨
  - 2017년 스마트공원 3개소 12.3억원, 쌈지주차장 5개소 39.0억원, 표지정비 4개소 6.0억원
  - 2018년 스마트공원 3개소 11.0억원, 쌈지주차장 4개소 38.0억원, 표지정비 6개소 10.12억원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사업비 투자 상위지역은 부여군 9.5억원, 예산군 9억원, 보령시 8억원 임
  - 2018년의 사업비 투자 상위지역은 부여군 9.5억원, 예산군 9억원, 보령시 8억원으로 나타남

[표 10]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투자비(2017년, 2018년)

사업	지역	2017년 금액(억원)	2018년 금액(억원)	지역별	2017년 총사업비(억원)	2018년 총사업비(억원)
스마트공원	천안	5	2	천안시	5	-
	서산	4	4	공주시	1.5	1.3
	태안	3.3	5	보령시	8	2
	계	12.3	11	아산시	-	-
쌈지주차장	부여	8	7	서산시	4	1.34
	서천	6	9	논산시	-	-
	청양	8	15	계룡시	1.5	-
	예산	9	7	당진시	-	-
	보령	8	38	금산군	-	7
	계	39	1.3	부여군	9.5	1.67
표지정비	공주	1.5	1.34	서천군	6	9
	계룡	1.5	1.67	청양군	8	15
	부여	1.5	2.47	홍성군	-	9.47
	태안	1.5	1.34	예산군	9	5.34
	계	6	2	태안군	4.8	7
합계		57.3	10.12	지역별 합계	57.3	-

## 2. 파급효과 분석 결과

### 1) 2017년 사업 추진 파급효과

- 2017년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예산인 57.3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분석된 결과는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설효과임
-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7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4.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73명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전 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29.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1.7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104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2017년 사업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유발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 사업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음

- 스마트 공원 조성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6.1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6명으로 나타남
- 씬지 주차장 조성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51.1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9명으로 나타남
- 도로 표지 정비 사업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7.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8명으로 나타남

[표 11] 2017년 지역경제 파급효과(단위: 억원, 명)

구 분			스마트공원 파급효과	씬지 주차장 파급효과	표지정비 파급효과	총 파급효과
사업비			12.3	39.0	6.0	57.3
파급 효과	생산 유발효과	충남지역	16.1	51.1	7.9	75.1
		기타지역	11.6	36.9	5.6	54.1
		전국	27.7	88.0	13.5	129.2
	부가가치 유발효과	충남지역	5.3	16.9	2.6	24.8
		기타지역	3.6	11.5	1.8	16.9
		전국	8.9	28.4	4.4	41.7
	고용 유발효과	충남지역	16	49	8	73
		기타지역	7	21	3	31
		전국	23	70	11	104

## 2) 2018년 사업 추진 파급효과

- 2018년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예산인 59.1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분석된 결과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설효과임
-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75.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5.7억원, 고용유발효과는 75명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전 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33.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3.1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2018년 사업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유발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 사업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음

- 스마트 공원 조성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4.4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0명으로 나타남
- 씬지 주차장 조성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47.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8명으로 나타남
- 도로 표지 정비 사업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3.3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3명으로 나타남

[표 12] 2018년 지역경제 파급효과(단위: 억원, 명)

구 분			스마트공원 파급효과	씬지 주차장 파급효과	표지정비 파급효과	총 파급효과
사업비			11.0	38.0	10.1	59.1
파급 효과	생산 유발효과	충남지역	14.4	47.8	13.3	75.5
		기타지역	10.4	35.7	9.5	55.6
		전국	24.8	85.5	22.8	133.1
	부가가치 유발효과	충남지역	4.8	16.5	4.4	25.7
		기타지역	3.2	11.2	3.0	17.4
		전국	8.0	27.7	7.4	43.1
	고용 유발효과	충남지역	14	48	13	75
		기타지역	6	20	5	31
		전국	20	68	18	106

국립안전연구원, 2012, 방재력을 고려한 도시안전기준 개발

김홍배, 2016,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산림과학원. 2017. 보도자료 : 도시숲은 미세먼지 잡아먹는 하마.

산업통상자원부, 2017. 「산업부가 바라본 4차산업혁명 코리아루트」

손지현 외, 2016, “포용도시 계획요소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51권 제6호.

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 2013, 「Urban Street Design Code」

Simona Schett, 2012. “An Analysis of Shrinking Cities”.

<http://www.visitphilly.com/events/philadelphia/pennsylvania-horticultural-society-pop-up-garden/#sm.0000l2txj1yjaer2xam21r77vmal1>

<https://www.facebook.com/gustiphotography/>